쓰즈키보 - 시키보 고치 공장과 함께 축적된 노하우 매수

시키보는 완전 자회사로서 방적사를 제조·판매하는 시키보 고치(高知)를 해산하고 2006년 9월까지 청산을 끝내기로 하자, 쓰즈키보가 토지 1만 982만 ㎡, 건물, 정방기 1만 2천 추를 포함한 방적 시설 등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시키보의 양도 자산은 장부 가격이 합계 4억 8,200만 엔인데, 양도 가격은 1억 2천만엔으로 결정되었다.

쓰즈키보는 종업원을 모두 인계받으며, 전액 출자로 새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새 회사는 쓰즈키 히다카(日商)로 정할 예정이며, 자본금은 1,000만 엔, 종업원 수는 50~55명, 월 생산량은 600~700곤의 체제로, 7월 1일부터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쓰즈키보는 4개 공장의 방적 추수 17만 추 체제가 된다. 종업원은 희망자를 모두 재고용하기로 함으로써 쓰즈키보는 그동안 중견 공장으로 굴지의 큰 방적 공장만의 수준 높은 기술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이제까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시키보 고치의 ① 다품종·소로트 생산 체제 ② 차별화 소재의 개발력 ③ 세번수사·니트사의 생산 기술 등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쓰즈키보는 이제까지 중번수를 주로 생산해 왔는데, 시키보 고치에서는 7~160수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코머 면사, 면·마·울, 면·모달, 면·실크 등의 광범위 품종을 다품종·소로트 생산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고치 공장에서는 혼방의 소로트·다품종 생산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면사를 주로 뽑는 이즈모(出雲) 공장은 양산을 위한 생산 체제로 되어 있다. 쓰즈키보 히다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면사에서도 소로트 다품종 생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이즈모 공장, 고치 공장, 쓰즈키보 히다카의 각 공장들은 장기(長技) 분야로 특화해 가며 상승 효과를 발휘케 할 계획이다. 시키보의 자산을 인수 받음으로써 시방(試紡) 능력도 증강되어, 혼방이 장기인 고치 공장과 쓰즈키 히다카에서는 상품 개발과 소로트·다품종 생산을 빠르게 추진한다. 또한 양산이 장기인 이즈모 공장에서는 한층 더 생산성을 올리고 코스트를 삭감하도록 할 것이다.

이들을 추진함으로써 중량 생산과 소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로 확산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판매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까지 추진해 본 일이 없던 니트 분야에도 진출할 것이며, 소재로서의 차별화를 엿볼 수 있는 어패럴이나 원단상과의 거래를 늘려나갈 것이다.♣